

빌립보서 4 장
C#2608-2

Therefore, my brethren dearly beloved and longed for (4:1),

What a beautiful words by Paul to the church, expressing his heart, just bearing his heart to them, "Dearly beloved, I long for you. My brothers, who I dearly love and I long for,"

[You are] my joy and [you are] my crown, so stand fast in the Lord, my dearly beloved (4:1).

The heart of the apostle. He is bearing his heart now, his love for those who he ministered to and those who ministered to him. Now, there were a couple of women in Philippi who were having an argument, a fight. That's not becoming the church, so Paul said,

I beseech Euodia (4: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4:1)

바울의 교회를 향한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의 애뜻한 마음을 전하며,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너희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같이 주 안에 서라. (4:1)

이것이 사도의 마음입니다. 사역을 했고 도움을 받은 이들에 대한 그의 애뜻한 마음입니다. 이제, 빌립보에 있는 몇몇 여성도들 간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교회답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4:2)

And the s isn't there, it is just, the s would make it a masculine name, but in the Greek, unfortunately, it is a feminine name, Euodia,

and I beseech Syntyche, that they be of the same mind in the Lord (4:2).

Now, let's not argue, let's not fight, let's not create division within the body. Let's be of the same mind in the Lord.

And I entreat thee also, true yokefellow (4:3),

이름에 "S"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불행이도, 헬라어에서는 여성의 이름입니다. S 가 있었으면 남성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4:2)

이제 다투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한 몸 안에서 분쟁하지 말자. 주안에서 한 마음이 되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네게 구하노니... (4:3)

Now, we don't know who Paul is referring to here. There have been a lot of guesses. Probably all of them are wrong. But the yokefellow would be one who had labored together. Maybe he was writing to the Philippian jailer who had been converted. There are some, I think it was Tertullium, one of the early church fathers, said he was writing her to his wife. But that hardly seems possible.

help those women which labored with me in the gospel, with Clement also, and with other of my other fellow laborers, whose names are in the book of life (4:3).

여기서 바울이 누구를 말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추측이 있지만 모두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멍에를 같이 한 자라면 함께 일을 한 사람일 것입니다. 어쩌면 변화받은 빌립보 간수에게 썼는지도 모릅니다. 어떤이들 중에, 제 생각에 초대교회의 아버지인 터툴리안 이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이들은 바울이 그의 아내에게 썼다고 생각했으나,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4:3)

When Paul went to Philippi, he first shared the gospel by the river where a group of ladies had gathered together for prayer. Among them, Lydia, you remember, the seller of purple. And having shared with the women, the following week they told their friends, and a big crowd of people gathered to hear Paul share the gospel of Jesus Christ. Because many of the women believed and were saved and baptized, and so the work of God really began with women, and they had a very important part in the ministry in the church in Philippi. And so, "Help those women who labored with me in the gospel, with Clement also, my fellow laborers, whose names are in the Book of Life."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제일 처음 복음을 전한 이들은 강가에 모여 기도하던 여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자주장사 루디아 가 있었습니다. 여성도들과 복음을 나눈 후, 그들이 친구들에게 알려,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려 모였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믿고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여성들로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그들은 빌립보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In Luke's gospel, chapter 10, there is the report of the disciples who had been sent out by Jesus, two by two, the seventy of them. And they came back and they said, "Lord, it was fantastic. A lot of people were healed; people who were blind, their

eyes were opened. And Lord, even the devils were subject unto us." And Jesus said to them, "Don't rejoice in these things, but rejoice rather that your name is written in heaven." Hey, t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here is nothing more important to me that my name is written in heaven. Not in what God is done through my life, that is not so important is that my name be written in heaven. That's what is really important to me. God has a book of life. It is exciting to realize that my name is there in His Book of Life.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두명씩 파송하신 일흔 명의 사도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보고하기를, “주님,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많은 병자가 낫고, 눈먼자가 눈을 뜨고, 귀신까지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들에게, “이런 것들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보다 더 중요한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하신 일보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이름이 그분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을 알 때 너무도 흥분됩니다.

We read in Revelation 20 of the great white throne judgment of God, “And the books were open, and the people were judged out of the things that were written in the book, and death and hell gave up their dead, and they were judged, and whosoever name was not found written in the Book of Life was cast into Gehenna and this is the second death.” But there again, the mention of the Book of Life. It is interesting to me that God has this book in heaven, the Book of Life, and the names of those who are heirs of the heavenly kingdom, ordained of God to share, and He has inscribed their names in the Book of Life.

우리는 계시록 20장에 하나님의 큰 백보좌 심판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계 20:12-15) 흥미로운것은 생명책을 가진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도록 임명된 상속자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습니다.

Now, when did God write my name in the Book of Life? When did He write your name in the Book of Life? You say, "Well, I was saved on October 2, 1968, so I guess God wrote my name in the Book of Life October 2, 1968." No! We read in the book of Revelation that our names were written in the Book of Life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How could He do that? Because He is God, and He is smarter than you are, because He is omniscient, He knows all things. And if God ever... well, because He knows all things, He can't learn anything.

그럼, 하나님이 언제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요? 언제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셨을까요? “글쎄요, 내가 1968년 10월 2일에 구원 받았으니까, 아마도 그때 생명책에 쓰셨을 것입니다.” 아니요! 계시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상의 기초가 있기도 전에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훨씬 똑똑하시고, 모든것을 다 아시므로 새로 배우는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It is impossible for God to learn anything. So, if God ever is to know who is going to be saved, He has always known who is going to be saved, and having always known those that were going to be saved, He wrote their names in the Book of Life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earth. Aren't you glad? He knew you and wrote your name there before He ever laid the foundations of the earth. "Whose names were written in the Book of Life," from the foundations of the earth. And so those fellow laborers, Paul said, "Whose names are written in the Book of Life." Something that Jesus mentions, something that Paul mentions, something that John mentions in the book of Revelation. Now,

Rejoice in the Lord always: and again I say, Rejoice (4:4).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므로 새 것을 배우실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구원 받을 아셔야 한다면 그는 누가 구원을 받을지 항상 다 아셨고, 또 누가 구원을 받으려 하고 있었는지도 아셨기 때문에 땅의 기초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모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땅에 기초도 생기기 전에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세전부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동역자들에게 바울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바울이 말했고, 요한도 계시록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4:4)

Again, notice the rejoicing is in the Lord. There is always cause for rejoicing in the Lord. I can rejoice because He wrote my name in His Book of Life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Oh, thank you, Lord. I can rejoice in the Lord. Rejoice in the Lord always, and again I say rejoice. A sad, sour Christian is no real witness to the gospel of Jesus Christ.

Let your moderation be known unto all men. The Lord is at hand (4:5).

다시 말하지만, 주안에서 기뻐라라고 하신 것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할 이유가 항상 있습니다. 만세전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할수 있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슬프하고 언짢아 하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4:5)

That is, live moderately, don't live extravagantly. There's no place in the Christian life for extravagant living. Live moderately. Why? Because the Lord is at hand. Don't get too involved in the things of the world, the Lord's coming.

Be careful [or anxious] for nothing [don't worry about anything]; but in every thing by prayer and supplication with thanksgiving let your requests be made known unto God (4:6).

그 의미는 절제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사치스럽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사치스런 삶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알맞게 사십시오. 왜냐면 주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에 너무 휩쓸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4:6)

The answer for worry is prayer. Prayer and commitment, those things that concern me, those things that are prone to cause me to worry are the very things I need to be praying about. And once I pray about them, I need to just trust God to take care of them. I need to know that once I commit them to God, they are in His hands and He will work them out for His glory. Now, it may not be for my pleasure, it may not be like I want it to be, but I thank God I'm not in control. I thank God that He is in control of the circumstances that surround me. If I were in control of my life, I could make the worst mess of my life thinking that I was just doing what was good. But, you know, if you just let a kid go, they will just eat ice cream sundaes and nothing else. And so I would order my life, you know, make it sweet, make it delectable, put hot fudge and whipped cream on top and toasted almonds, you know.

염려에 대한 해답은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나를 근심케하고, 나를 걱정하게 만드는 요소들이야말로 기도해야 할 것들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 후에는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역사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나의 소관에 있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변의 상황을 주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내 삶을 주관한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일 아이를 마음대로 하게 놔두면 다른 것은 먹지 않고 아이스크림만 먹을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달콤하고 즐겁게 하기 위하여 밀크 초코렛 에 크림을 얹고 그 위에 구운 알몬드를 곁들인 것을 주만할 것입니다.

I want a bed of roses, Lord. I want to take it easy. But it doesn't always work out that way. Many times there are hardships, there are difficulties. There are things that I don't understand, but my faith is being tested, and my faith is being developed because I'm learning to trust in God even when I can't see the way. And though it doesn't fall the way I would like it to fall, I still trust the Lord and I learn that He has a better plan. Yes, it was tough, yes, I did hurt, yes, there was suffering. But ohhh the lessons that I learned that I wouldn't trade for anything, because I grew immensely and my walk and relationship with God has been enhanced by the whole thing. And I count that which I gained in my relationship with Him far more than the struggle that I went through.

주님, 전 안락한 생활을 원합니다. 저는 쉽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게 일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지만

나의 믿음이 시험 당하고 있고 자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해도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이 더 나은 계획이 있으신 줄을 압니다. 예, 힘들지요. 예, 상처도 됩니다. 예,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오, 내가 배운 교훈은 그 어떤 것보다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통해 내가 무한히 성장하고 나의 걸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은 것을 내가 지나온 고난들보다 더 소중히 생각합니다.

We used to hear down in the south that song, "Farther along we'll know all about it. Farther along we'll understand why. Cheer up, my brother, live in the sunshine. We'll understand it all by and by." It was written during the depression years, I think. Hard times down in the south. Song of encouragement.

They that live godly in Christ Jesus shall suffer persecution. It's not going to be easy, but the Lord is going to be there. And the Lord will give you strength, and the Lord will help you. So, the worries, the concerns, the anxieties, pray about them, give them over to the Lord, cast all of your cares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남부지방에서 들을 수 있는 노래 중에, "더 지나면 모두 알 수 있다. 더 지나면 그 이유를 이해할 것이다. 형제들이여, 힘을 내어 햇빛 가운데 살자. 모든것을 차차 다 알게 될 것이다." 이 노래는 불황때 작사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남쪽에서 어려웠던 시절에 불렀던 격려의 노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하면 환난을 겪어야합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주님이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고 도와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 근심, 불안, 모두 주께 맡기고 그에게 던져버리십시오. 주님이 돌보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And so, with prayer and supplication, with thanksgiving, three aspects of prayer. Prayer itself is very broad term that describes communion with God. Prayer is not a monologue; it is a dialogue. And it is important that we wait for God to speak to us, as well as to speak to God. So many people consider prayer a monologue. I want to go in and talk to God, and I do all of the talking, and when I am finished talking, I get up and leave. I never wait for God to respond or to answer.

그래서, 기도와 간구, 감사, 이 세가지가 기도의 요소들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친교를 묘사하는 아주 광범위한 용어입니다. 기도는 혼자 말하는것이아니라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를 혼자 말하는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원할 때 하나님께 가서 할 말을 실컷 다하고, 끝나면 자리를 뜹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반응이나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Through the years, I hav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it is more important that God talk to me than I talk to God. I am convinced that what God has to say to me is far more important than what I have to say to God. And I have sought to develop that listening side of prayer. The communion, prayer is communion with God. Listening for Him to speak to my heart. Laying my heart out before Him, waiting upon Him, worshipping Him, loving Him, all a part of prayer. Another part of prayer is supplication: my requests, where I present to God those needs of

my life, those needs in the lives of those around me. The supplications are personal, but they can also go into intercession. So, there is request, and in the narrow sense, for my own needs, and then in the broader sense, for the needs of those around me, the intercessory prayer. And then there is that thanksgiving aspect of prayer.

세월을 지나,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듣는 기도를 발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에 귀기울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기다리며, 경배하고,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이 기도의 부분입니다. 기도의 또 다른 부분은 간구입니다: 나의 간구,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내 주위의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다. 간구는 개인적인 것이지만, 중보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구는 좁은 의미에서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지만, 폭 넓은 의미로는 다른 이들의 필요를 아뢰므로 중보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Now, as we look at the Lord's prayer as a model,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and hallowed be thou name," you see it begins with the acknowledgment of God and the greatness and the glory of God. The name of God, hallowed be that name, reverend be that name. Petitions in a broad sens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even as it is in heaven." Petitions in a narrow sense,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deliver us from evil." Praise, glory, thanksgiving,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So it begins with worship, it ends with worship, sandwiched in between, our petitions and intercession. And so, we find prayer, supplications, thanksgiving, let your request be made known unto God.

우리가 주기도문을 본보기로 삼고 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광을 인정함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폭넓은 의미의 간구는,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좁은 의미의 간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경배, 영광, 감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경배로 시작하여 경배로 끝나며 중간에 간구와 중보가 끼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And the peace of God [the result of this will be the peace of God],
which passeth all [human] understanding, shall keep your hearts and minds
through Christ Jesus (4:7).*

You will experience such peace. "Hey, what are you going to do?" "Well, I have prayed about it." "Yah, but what are you going to do about it?" "Well, I have already done it, I have prayed." "Yah, but you can't just pray; you have got to do

more than that." "Now God is going to take care of it. I have peace. It is in God's hands; I have turned it over to Him. I am not struggling with it anymore. I am not wrestling with the issues anymore; I have turned them over to God, and now I am going to rest in Him. I am going to have an experience." That peace that passeth human understanding, passes your own understanding. You can't understand how that you can feel such peace in the midst of such turmoil.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4:7)

여러분은 이러한 평강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 그것에 대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전 벌써 했습니다. 기도했다니깐요.” “알아요. 그러나, 기도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해야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보살피 주실테니, 제 마음이 편해요. 그것을 하나님 손에 넘겼지요; 그 분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더 이상 나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더 이상 씨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분 안에서 안식하렵니다. 전 그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인간의 지각과 나의 지각을 뛰어넘는 평안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복잡한 문제 속에서 그러한 평강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아마 모르실 것입니다.

Finally, brethren, whatsoever things are true, whatsoever things are honest, whatsoever things are just, whatsoever things are pure, whatsoever things are lovely, whatsoever things are of good report; if there be any virtue, and if there be any praise, think on these things (4:8).

That pretty well eliminates television, doesn't it? Of all of the mental pollution that is going out night after night over the major networks. Our whole nation is being polluted by the television industry and by the movie industry. I mean, it is leading the nation right down the tubes. Why? Because it is having people think on things that are impure, unholy, filthy, unrighteous, immoral, and there is other things we need to be thinking on. Sort of tragic, a lot of people watch television just before they go to sleep, because you plant that junk in your mind just before you drop off.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만 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만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쁨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4:8)

그것이 텔레비전을 없애는것은 잘 하는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밤마다 주요 방송에서 흘러 나오는 정신적 오염이 흘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전체가 텔레비전업체나 영화산업체로 인해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왜냐구요? 그것은 사람들을 불결하고, 거룩하지 못하며, 더럽고, 옳지 않고, 부도덕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 생각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비극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전에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잠동사니들을 마음에 심고 잠을 자니 말입니다.

You know, I have found that what I plant in my mind the last thing at night before I go to sleep is something that sticks with me. I learned as a child that I can

memorize any poem by reading it over three times before I went to sleep. In the morning I could get up and recite it. Poems of several pages, all I do is read them over three times before I went to sleep, and in the morning I could recite them. Because it seems like during the night, what you plant just before you go to sleep has a way of your mind continuing to work on it.

제게 발견한 것은, 자기 바로 전에 마음에 둔 것은 계속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시를 외우려면 잠들기 전 여러번 반복하면 외울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장 되는 시를 잠들기 전 세번씩 읽으면 아침에도 외울 수 있습니다. 여러 면이 되는 시도 자기 전에 세번 읽으면 아침에 그것들을 외울 수가 있습니다. 저녁에 잠들기 바로 전 마음에 심어둔 것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And many areas across the United States we have begun our Word for Today broadcast on many stations now at 10:00 o'clock at night. And a lot of people have gotten in the habit of setting their clocks on the radios to, you know, from 10:00 to 10:30, then, you know, and I put them to sleep every night. What a wonderful thing. The last thing in the night to be planting in your mind: that which is pure, that which is true, that which is honest, that which is just, that which is lovely, that which is of virtue and good report, think on these things. Interesting how we like to think on other things, isn't it? The hurts, the disappointments, the nasty thing that he said to me. Here is a good model to follow, I think that somewhere around the house we ought to put up, "True, Honest, Just, Pure," that our minds, we gear them toward these things.

미국에 많은 지역에서 저희 교회의 “오늘의 말씀 (Word for Today)” 방송을 저녁 10시에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라디오 시계를 10시에서 10시 30분 으로 맞춰 놓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저는 매일 밤 그들을 채워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녁에 여러분들 마음 속에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정직하고, 무엇에든지 정의롭고, 사랑할만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쁨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처받고, 실망하고, 내게 욕한 것들 말입니다. 여기에 따를만한 좋은 본보기가 있습니다. 제 생각엔 집안 여러 곳에 “진실. 정직. 정의. 정결.” 이라고 붙여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말입니다.

*Those things, which ye have both learned, and received, and heard,
and seen in me (4:9),*

Paul the apostle, when he was talking with the elders at Ephesus, he said, "I was daily with you teaching you and showing you." It was show and tell with Paul. His life was the example of that which he was preaching, and so should it always be. It isn't just the proclaiming of the truth, it is the demonstration of the truth. And so Paul tells them, "Those things which ye have learned, and received, and heard, and you have seen in me, I set the example before you."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4:9)

바울사도가 에베소의 장로들과 이야기 할 때, “내가 매일 너희들을 가르쳤고 너희에게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보여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의 삶이 가르침의 본보기였고 항상 그랬습니다. 진리를 전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몸소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아 드렸고 나에게서 듣고 본바니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고 말했습니다.

do [them]: and the God of peace shall be with you. But I rejoiced in the Lord greatly, that now at the last your care of me hath flourished again; wherein ye were also careful, but ye lacked opportunity (4:9-10).

In other words, "You were anxious to send me some help, but you lacked opportunity. " Epaphroditus, you remember, had come to Rome, with a offering from the church in Philippi for Paul. And so, the care of him has flourished again. They sent him a very generous offering. They desired to do it before now, but, of course, he had been on his way from a Caesarea to Rome. He had been on that ship that was wrecked and spent a lot of time; they weren't able to catch up with him. But now, finally, that he is sitting there in prison in Rome, they are able to get to him again, and they send this offering. And so he thanks them that this care for him is flourished again.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4:9-10)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간절히 도우려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에바브로디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헌금을 바울에게 전하기 위해 로마로 왔었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에 대한 보살핌이 다시 풍성해졌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정성어린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전부터 그렇게 하기를 소원 했으나,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오던 중이었고, 배가 침몰되어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그를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게 되자 다시 그를 볼 수 있게 되어 헌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그들의 넘치는 보살핌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Not that I speak in respect of want (4:11):

It is not that I really am, you know, desperately in need. It isn't that I have tremendous needs while I am here.

for I have learned, in whatsoever state I am, therewith to be content (4:11).

Oh, what a tremendous lesson we need to learn. Because always the state that we are in might not be the most pleasant state to be in. Paul was in prison when he wrote this, chained twenty-four hours a day to a different Roman guard, as they would make their changes. And yet, content. "For I have learned whatever state I am in to be content."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4:11)

내가 이곳에 있는동안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서가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4:11)

이 얼마나 우리가 배워야 할 큰 교훈입니까. 항상 우리가 좋은 상황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편지를 쓸때 바울은 24시간동안 다른 로마의 경비병에게 쇠고랑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만족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I know both how to be abased, and I know how to abound: every where and in all things I am instructed both to be full and to be hungry, both to abound and to suffer need (4:12).

It doesn't matter to me; I can live with it, I can live without it. I have learned to be content with it. I have learned to be content without it. Whatever state God sees to put me, I am content, because my life is in God's hands; He is in control of those things that surround me. He wrote, "Godliness with contentment is great riches." I have learned how to be content.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보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4:12)

내게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풍부에도 자족하기를 배웠고, 가난에도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상황에 놓으시든지, 나는 자족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쓰기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되느니라.”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고 했습니다.

[For]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ich strengtheneth me (4:13).

And there is the secret: I can abound, I can be poor,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ich strengthens me.

In the fifteenth chapter of the gospel of John, as Jesus is talking about His relationship to His disciples, He said unto them, "I am the vine, ye the branches, my Father is the husbandman. Every branch in Me that bears fruit, He washes it that it might bring forth more fruit. Now you are clean through the word which I've spoken unto you. Abide in Me, and let My words abide in you, as the branch cannot bear fruit of itself, except it abide in the vine, neither more can ye except you abide in Me, for without Me you can do nothing."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4:13)

바로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풍족할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자신과 제자들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며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내안에 있는 모든 가지는 과실을 맺나니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케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말이 너희안에 거하게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Do you believe that? I didn't for a long time. The Lord had to prove that to me. I thought there was something I could do worthwhile in my flesh. And I tried too long to offer to God the sacrifices of my flesh. But one day, after years of struggle, I came to the truth of the statement of Christ and realized the truth of it, apart from Him I could do nothing. But thank God, in the same day I also learned the truth that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s me. And so, rather than being all wiped out because I can't do anything in myself, I rejoice because of what I can do in Him.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There are two verses I count extremely important in my own experience. Vitally important. To learn those two verses is vital to Christian growth.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Jesus said. But Paul said,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s me."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오랫동안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제게 증명해 보여 주셔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육신에 있는 동안 제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랜동안 하나님께 육신의 제사를 드리고자 갈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수년 간의 고생 끝에,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이 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같은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좌절하고 있기보다는 내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얻은 두개의 가장 중요한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해 이 두가지의 구절을 배우는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와 바울이 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입니다.

Notwithstanding, ye have done well, that ye did communicate with my affliction [to my needs]. Now ye Philippians know also that in the beginning of the gospel, when I departed from Macedonia [Philippi was in the area of Macedonia], no church communicated with me as concerning giving and receiving, but ye only (4:14-15).

When I left you, you were the only church. Now, there was a church at Thessalonica, Paul established the church of Berea. They didn't do anything for him. The only church that really sought to help Paul and support that ministry was the church of Philippi.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 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4:14-15)

내가 떠날 때에 너희 교회 밖에 없었다. 데살로니가에 한 교회가 있었고, 바울이 베레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시다. 오직 필립보 교회만이 진실로 바울을 돕고 지원하려고 힘썼습니다.

For even in Thessalonica [when I was there] ye sent once and again unto my necessity [to take care of my needs]. Not because I desire a gift: but I desire fruit that may abound to your account (4:16-17).

I love that. Paul was thanking them for what they sent, "not because I desire a gift. I desire that fruit might abound to your account." Now, God has a very interesting bookkeeping system. And in God's bookkeeping system, your investments that you make in the kingdom of God bring fruit to your account. Jesus said, "Don't lay up for yourself treasures on earth where moth and rust can corrupt and decay and thieves can break through and steal. But lay up for yourself treasures in heaven where these things cannot happen, fo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will your heart be also."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번 두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4:16-17)

바울은 그들이 보내준 연보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자, 하나님은 아주 흥미로운 회계장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장부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투자한 것은 열매로 여러분의 통장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 6:19-21)

God accounts to the person who supports the missionary the fruit that comes from the missionary's service. How can they hear without a preacher? How can they preach except they be sent? So, those that send share equally in the fruit of the ministry of those who go. That is why in supporting a ministry, I want to be very careful what ministry I support. I want to make sure that it is an effective ministry, doing a good work for God. Because there is a lot of charlatans out there that are padding their own pockets and not really doing a real service for God.

하나님께서서는 선교사를 돕는 자들에게도 선교사의 봉사로 오는 열매를 그 사람의 통장에도 똑 같이 넣어 주십니다. 전하는 자 없이 어찌 말씀을 들으리요? 보내는 자 없이 어찌 전하는 자가 있으리요? 그러므로 보내는 자도 보냄을 받은 자와 똑같이 열매를 거둡니다. 그래서 사역을 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교사역을 돕는가에 대해 저는 아주 조심합니다. 저는 그 사역이 효과적인 사역임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하는지를 확실히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주머니만 채우는 가짜가 많기 때문입니다.

We were in Goroka, New Guinea, a beautiful place, sort of an ideal place to live. Weather is perfect year around. And just up in the highlands in New Guinea just beautiful, beautiful streams, beautiful forest, beautiful place to live. And as they were taking us through there, they said there is just a lot of paper missionaries here. And I said, "Paper missionaries, what do you mean?" And he said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have retired here in Goroka who get their support by writing letters to people in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and England, sharing with them the ministry here among the New Guinea people.

우리가 뉴기니아의 고로카라는 곳을 방문 했는데 그곳은 아름답고 살기에 이상적인 곳이었습니다. 연중기후도 좋으며 뉴기니아에서 지대가 높은 곳으로 아름다운 강과 산이 있는 살기 좋은 곳입니다. 안내인이 우리를 인도할 때, 이곳엔 종이 선교사가 많다고 했습니다. “종이 선교사가 무슨 뜻인가요?”라고 반문하자, 이 곳에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 와서 미국이나 호주, 영국 등지에 편지를 보내어 그들이 뉴기니아 사람들에게 사역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And what they do is, they get in their Land Rovers and they go out to the villages and they pass out candy to the children. And they will take pictures of the children reaching out for candy. And then they will send these pictures and letters back to the people and say, you know, "The children are reaching out for the New Testaments that we are passing out in the villages and all, and look at how, you know, all of the children, and all, had a tremendous response and God is doing a glorious work and all." And people are supporting them. Yet, they are just retired; they don't do anything but go out to the village once a month to take pictures of kids getting candy. Unfortunately, those people do exist. Frauds, charlatans, they'll have to answer to God.

그들은 차를 타고 마을에 들어가 아이들에게 사탕을 건네주며, 사탕을 받으려고 몰려드는 아이들의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는 사진과 편지를 보내며, “이 아이들이 우리가 나눠주는 신약 성경을 받으려고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놀라운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스런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들을 돕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퇴직후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한달에 한번씩 마을에 와서 사탕을 받으려는 아이들의 사진이나 찍어 갑니다. 불행히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가짜들, 사기꾼들은 하나님 앞에 설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The World Counsel of Churches uses a portion of their funds to support terrorist groups in Africa, supporting the P.L.O. their terrorism programs. A lot of missionaries were killed in Zabway by the terrorists, missionary children, by the dollars given in the churches that have a part in the National Counsel of Churches and the World Counsel of Churches.

세계 교회협의회 (The World Counsel of Churches) 는 아프리카의 폭도 단체인 팔레스타인 독립군 (P.L.O.) 의 하는 일을 돕는 목적으로 현금의 일부를 사용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과 자녀들이 Zabway 에서 테러리스트들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들의 돈이 국내 교회협의회 (National Counsel of Churches) 와 세계 교회협의회 (The World Counsel of Churches) 가 주었던 것입니다.

I wouldn't give a dime to any church that's affiliated with the World Counsel of Churches, knowing that a portion of that dime would be going to support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I don't want to be giving money to terrorists in Africa who are murdering missionaries and their families. Nor would I want to be supporting Angelia Davis's defense, which received a generous contribution from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Careful where you invest. Paul said, "That fruit might abound to your account." Well, there is some kind of fruit that I really don't want to my account. And thus, I don't want to invest in that. I want to know that there is a valid and legitimate work being done, and that it is a fruit-bearing work, that fruit might abound. I want to support that kind of work.

And so Paul said, "Not that I desire a gift. I desire that fruit might abound to your account."

저는 제가 낸 돈의 일부가 세계 교회협의회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에 쓰여진다는 걸 안 이상 그 단체에 연관된 어떤 교회에게 단돈 10전도 줄 수가 없습니다. 제 돈을 선교사들과 그의 가족들을 죽이는 살인자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국내 교회협의회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의 후한 도움을 받는 안젤리아 데이비스 (Angelia Davis) 에게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하는 곳을 잘 살피십시오. 바울은 “과실이 번성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했습니다만, 내 통장에 들어 오는것을 원치 않는 과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투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확실하고 합법적인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싶고, 그러한 일이 열매맺는 일이며,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일을 돕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But [I have everything] I have all, I abound (4:18):

Got plenty. What a beautiful thing to say even though you're broke. I have all, I abound. Why? Because I have Jesus. That's enough.

I am full, having received from Epaphroditus the things which were sent from you, an odor of a sweet smell [Probably some cologne, I guess], a sacrifice acceptable, [and] well-pleasing to God. But my God shall supply all of your need according to his riches in glory by Christ Jesus (4:18-19).

Isn't that a glorious promise? Take hold of it tonight. My God shall supply all of your need according to His riches in glory in Christ Jesus. Now who can measure that kind of riches? If God spared not His own Son, but delivered Him up for us all, how much more than shall He not freely give us all things?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리라. (4:18)

모든 것이 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그렇게 말하는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합니다. 왜? 내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4:18-19)

이 얼마나 영광스런 약속입니까? 오늘 이것을 꼭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여러분의 필요한것을 다 공급하실 것입니다. 누가 그 풍성함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주셨는데, 얼마나 더 많은것을 아낌 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Now unto God and our Father b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Salute [greet] every saint in Christ Jesus. The brethren which are with me greet you. All the saints salute you, chiefly they that are of Caesar's household (4:20-22).*

As Paul was chained to the Roman guard, those were Caesar's guards, and so many of Caesar's household send their greetings through Paul, who had received Christ because Paul's imprisonment there.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4:20-22)

바울이 로마 군병에게 묶여 있을 때, 그들은 가이사의 근위대이었고, 많은 가이사의 식구들이 바울을 통해서 안부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입니다.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 all. Amen (4:23).

Beautiful, beautiful epistle to the Philippians, and now the glorious epistle to the Colossians; next week, the first two chapters. The preeminence of Jesus Christ. Aw, this one just lifts you into glory as we behold Jesus Christ our Lord, and we see the preeminence that God has given unto Him. The preeminence of Christ. The book of Colossians, one that will enrich us so completely as we study it together.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찌어다. (4:23)

정말 아름다운 빌립보서입니다. 이제 영광스런 골로새서를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 으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실 때, 그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위대함을 우리가 봅니다. 위대하신 그리스도. 골로새서는 우리를 완전히 풍성하게 만들것입니다.

And now may God cause you to abound in love and in your walk in the Spirit. And may indeed you find the promise to be true as God supplies all of your needs: spiritual, financial, physical, according to His riches in glory by Christ Jesus our Lord. God bless and keep you and give you a beautiful week. In Jesus' name.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 안에서 풍성하게 하시고 성경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 주신다는 약속을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아름다운 일주일을 주시도록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